

## 국어[한문포함]

문 1.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엄마 뿐이다.
- ② 고국을 떠난지 삼 년이나 되었다.
- ③ 영호는 숙자를 사랑할만큼 좋아하지는 않는다.
- ④ 순이는 혼나기는커녕 오히려 칭찬을 받았다.

문 2. 다음 중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정부는 일본 시네마 현의 ‘독도의 날’ 선포에 대해 일본에게 강력히 항의하였다.
- ② 그 이론은 종래의 이론을 반박한 것이라 하여 크게 주목받았을 뿐 아니라 반대로 매우 컸다.
- ③ 공장의 폐수를 분리하도록 한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시킨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 ④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일제의 식민지 교육이 민족을 분열시키는 간교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문 3. 다음 중 로마자 표기법에 맞는 것은?

- ① 볍음밥 - Bokkeumbap      ② 동래 - Dongrae
- ③ 벚꽃 - beotkkot      ④ 식혜 - shikhye

문 4. 다음 중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잔디를 밟지[밥 : 짜] 마시오.
- ② 오늘은 하늘이 맑게[말게] 갯네요.
- ③ 시간이 나면 책을 읽지[일제] 그러니.
- ④ 넓고[널꼬] 넓은 바다가 온통 기름으로 얼룩졌습니다.

문 5.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 ① 가발을 쓰니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였다.
- ② 회사를 부실하게 운용한 책임을 지고 사장이 물러났다.
- ③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적도 많이 향상됐으면 좋겠어요.
- ④ 인수위는 여의도에 사무실을 일대해서 사용하기로 했다.

문 6. 다음 한자성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팀이 브라질 대표 팀과 乾坤一擲의 승부를 펼치는 날이다.
- ② 그가 지금 잘살 수 있는 것은 가난하였어도 見蚊拔劍하였기 때문이다.
- ③ 우리는 그 나라가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아서 쇠락한 것을 反面教師로 삼아야 한다.
- ④ 지난날 일부 정치인들은 민생은 돌보지 않고 尸位素餐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 7. 다음 중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남보다 두 배로 열심히 할 것이다.
- ② 친구 사이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의를 지키는 일이다.
- ③ 그는 편지 배달뿐만 아니라, 편지 사연까지 읽어주었다.
- ④ 철수는 진실한 사랑의 표시로 준비했던 선물을 주었다.

문 8. 다음 중 더 쉽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꾼 예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일정한 기간 동안 취업이 정지된 자가  
→ 일정 기간 취업이 정지된 자가
- ②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 혼인관계가 끝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 ③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 감가상각이 필요한 자산에 대하여는
- ④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적립금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문 9.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맞는 단어들로만 묶인 것은?

- ① 머릿방 - 뗏기 - 셋방 - 곳간
- ② 널따랗다 - 높따랗다 - 굵직하다 - 짙막하다
- ③ 넘어지다 - 허애지다 - 흠여지다 - 버러지다
- ④ 합격율 - 규율 - 선율 - 실패율

문 10. 밑줄 친 단어가 파생어가 아닌 것은?

- ① 사람들은 검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탄성을 질렀다.
- ② 그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이야.
- ③ 김 선수는 힘이 빠졌는지 계속 헛손질을 했다.
- ④ 우선 그 도형의 넓이부터 계산해 보게.

문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부 방언에서 ‘나무’를 ‘낭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나+ㅁ(중성)’으로도 쓰였기 때문이다.
- ② ‘암답’ 대신 ‘암탐’으로 쓰는 것은 ‘암탐’이 역사적으로 하나의 어근을 갖는 단일어였기 때문이다.
- ③ ‘조’와 ‘쌀’의 합성어인 ‘좁쌀’에 ‘ㅁ’이 첨가된 것은 ‘쌀’이 역사적으로 ‘ㅁ+·(아래 아)+ㄴ(중성)’이었기 때문이다.
- ④ ‘잔디’에 구개음화 법칙을 적용하여 ‘잔지’로 발음하지 않는 것은 역사적으로 ‘잔되’였기 때문이다.

문 12. 다음 글의 앞에 나왔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사가 처음부터 사대부층에 의하여 생성된 것은 아니었다. 고려말 나옹화상의 『서왕가』를 호시 작품으로 인정할 때, 가사는 고려말 승려 계층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대부 계층에 가사가 수용된 이후로 본격적인 창작이 이루어지고 가사가 널리 성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사는 사대부층에 기반을 둔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문학 양식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① 가사의 장르적 특성
- ② 가사의 대표적인 창작 계층
- ③ 가사 창작 계층의 변동 양상
- ④ 조선 시대 사대부의 문학 활동

문 13. 밑줄 친 부분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은 정성 때문이니, 전혀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늘을 속이면 제일 나쁜 일이고, 임금이나 아버지를 속이거나 농부가 같은 농부를 속이고 상인이 동업자를 속이면 모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속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자기의 입과 입술이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맛있게 생각하여 입과 입술을 속여서 잠깐만 지내고 보면 배고픔은 가셔서 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이해해야만 가난을 이기는 방법이 된다.

금년 여름에 내가 다산(茶山)에서 지내며 상추로 밥을 싸서 덩이를 삼키고 있을 때 구경하던 옆 사람이 “상추로 싸 먹는 것과 김치 담가 먹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답해 “그건 사람이 자기 입을 속여 먹는 방법입니다.”라고 말하여 적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 정약용,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 —

- ① 가난한 생활 처지를 극복하는 방법
- ② 맛있는 것을 맛있게 먹는 방법
- ③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방법
- ④ 정성을 들여 음식을 먹는 방법

문 14. 다음 글에서 ‘윤 직원 영감’을 비판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저어, 샅 말씀이옵습니다. 헤…….”  
크게 과단을 낸다는 게 결국은 크게 조심을 하는 것뿐입니다.  
“썩?”  
“네에!”  
“아—니 여보소, 이 사람…….”  
윤 직원 영감은 더러 역정을 내어 하마 샷대질이라도 할 듯이 한 걸음 나섭니다.  
“……자네가 아까 날더러 처분대루 허라구 허잖았녕가?”  
“네에!”  
“그렇지……? 그런디 거, 처분대루 허람 말은 맘대루 허람 말이 아닝가?”  
인력거꾼은 비로소 속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참 기가 막힙니다. 농도 할 사람이 따로 있지요. 웬만하면, 허허! 하고 한바탕 웃어 젖힐 노릇이겠지만 점잖은 어른 앞에서 그럴 수는 없고, 그래 허죽이 웃기만 합니다.  
“……그리서 나넌 그렇기 처분대루, 응……? 맘대루 말이네. 맘대루 허라구 허길래, 아 인력거 샅 안 주어도 갹기잖헌 중 알구서, 그냥 가라구 히였지!”

— 채만식, ‘태평천하’에서 —

- ① 牽強附會
- ② 犬馬之勞
- ③ 口蜜腹劍
- ④ 雪上加霜

문 15. 다음 글을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은?

- (가) 고창 갯벌은 서해안에 발달한 갯벌로서 다양한 해양 생물의 산란 서식지이며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많은 혜택을 주어 왔다. 그러나 최근 축제식 양식과 육상에서부터의 오염원 유입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로 체계적인 이용 관리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 (나) 정부는 전라북도 고창 갯벌 약 11.8km<sup>2</sup>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일곱 번째로 지정되는 고창 갯벌은 칠면초, 나문재와 같은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고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46종의 바다새가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며 보호 가치가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 (다) 정부는 이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고창 갯벌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2012년까지 제2차 연안습지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뿐만 아니라 훼손된 갯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서 공유수면 매립, 골재 채취 등의 갯벌 훼손 행위는 금지되나, 지역 주민이 해오던 어업 활동이나 갯벌 이용 행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라) - (나) - (다)
- ③ (나) - (가) - (라) - (다)
- ④ (다) - (가) - (나) - (라)

문 16. ㉠ ~ ㉣ 중 나머지 셋과 시적 정서가 다른 것은?

갈아놓은 논고랑에 고인 물을 본다.  
마음이 행복해진다.  
나뭇가지가 꾸부정하게 비치고  
햇살이 번지고  
날아가는 새 그림자가 잠기고  
㉠ 나의 얼굴이 들어 있다.  
늘 홀로이던 ㉡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누가 높지도 낮지도 않다.  
모두가 아름답다.  
그 안에 ㉢ 나는 거꾸로 서 있다.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이  
본래의 ㉣ 내 모습인 것처럼  
아프지 않다.  
산도 곁에 거꾸로 누워 있다.

— 이성선, ‘논두렁에 서서’에서 —

- ① ㉠
- ② ㉡
- ③ ㉢
- ④ ㉣

문 17.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가 살아남고, 다음 세대들이 이 조그마한 행성 위에서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하려면 탐욕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가 사람살이의 척도가 되는 세상을 향해 조금이라도 나아가기를 염원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 대량 생산과 소비체제, 장거리 유통구조, 거대산업과 권력의 중앙 집중, 관료주의 학교와 병원의 위계질서, 행형제도, 비대화하는 도시공간과 황폐화하는 농촌, 과학기계 영농, 자가용에 의존하는 교통체계 - 도대체 이런 것들이 지탱 가능한 생활 방식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 해도 그것을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짓지 못한다면 그런 인식은 헛된 것일 뿐이다. ( )

- ① 진정한 생명가치를 인식하고 선양하려면 우리가 탐닉해 있는 문명의 안락과 편의를 많은 부분 포기할 필요가 있다.
- ②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동차의 생태학적 부담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 ③ 하기는 산업문화의 압력 밑에서 이것을 정면으로 파악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용기를 가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 ④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명을 그대로 두고도 환경 재난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그 누군가를 기대할 수 없다.

문 18. ㉠, ㉡, ㉢ 속에 들어갈 접속부사로 옳은 것은?

순화란 잡스러운 것을 걸러서 순수하게 하는 일이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 국어 순화란, 잡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들어온 말(외래어, 외국어)을 가능한 한 토박이말로 재정리하는 것이요, 비속한 말과 틀린 말을 고운 말과 표준어 및 말의 법대로 바르게 쓰는 것이다. 또 그것은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어려운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쉬운 말로 고쳐 쓰는 일도 된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말을 다듬는 일, 그것이 바로 국어의 순화이다.

말을 다듬는 일이란, 말에다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것과 사람의 창조적인 힘을 더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면 과연 말에 인위적으로 손을 댈 수 있고 사람의 창조적인 힘을 더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말에 대한 관점, 곧 언어관에서 구해야 한다. 만일 말을 단순히 사회적 소산이나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만 보는 데 그친다면, 말에 결코 인위적인 손길이나 창조적인 힘을 더할 수 없다는 이론이 성립될 것이다. (㉡)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국어 순화 문제도 이러한 쪽에서 보면 그리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말의 순화 운동의 초기 단계에 순화 반대론자가 있었던 것도 이러한 언어관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 우리는 우리말의 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 ㉡    | ㉢   |
| ① 그러나 | 또    | 그러나 |
| ② 그래서 | 따라서  | 그리고 |
| ③ 따라서 | 그리하여 | 그러나 |
| ④ 그리고 | 그래서  | 그러나 |

문 19. 다음 글의 주제로 옳은 것은?

호주제는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인위적 가족집단인 가(家)를 구성하고 이를 승계한다는 것이 그 본질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인위적 가족집단인 가(家)를 구성·유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차치하고서, 남계혈통 위주로 가(家)를 구성하고 승계한다는 것은 성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편과 아내를, 아들과 딸을, 즉 남녀를 차별하는 것인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

- ①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 무시
- ② 호주승계의 순위와 신분관계 차별
- ③ 변화된 사회환경과 가족상의 미반영
- ④ 성의 고정관념에 따른 양성평등원칙 위반

문 20. 괄호 ㉠ ~ ㉣ 안에 각각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천(堤川)인지로 (㉠)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 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꼴은 (㉢)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 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가 나지…… 그러나 늘그막까지까지 (㉣)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려네. 대화 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천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에서 —

- |              |            |
|--------------|------------|
| ① ㉠ - 줄행랑    | ② ㉡ - 뒷공문  |
| ③ ㉢ - 물으나마나한 | ④ ㉣ - 장돌뱅이 |